

월요광장

K팝 장르의 다양화가 필요한 이유



홍 상 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태데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란 격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수로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계란이 한 번에 모두 깨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다. 주식시장에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인용하는 말이지만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국가 경제활동에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정부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가능한 한 많은 글로벌 1등 상품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최근 해외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는 우리 대중문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대중음악 한류의 중심인 K팝은 곧 아이돌 음악이라는 등식이 성립해 왔다. 우리나라 연예기획사의 선진적 시스템에 의해 육성된 아이돌 그룹들이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미까지 팬덤을 형성하며 K팝 한류를 이끌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K팝 한류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색깔과 모양을 가진 다양한 계란(K팝) 바구니를 많이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장르에서 싸이 등의 ‘강남스타일’이 나와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발굴해 세계시장에 내놓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절실하다. 지난 6~8월 서울 이태원에서는 한국 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2014 서울국제 뮤직페어(MU : CON SEOUL 2014)’가 열렸다. 2012년 처음 시작한 무연에는 올해도 조용필의 ‘헬로’ 음반을 프로듀싱한 토니 마세라티를 비롯한 세계적 프로듀서들과 모든 인디 밴드들의 꿈의 무대인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를 총괄 기획하는 제임스 마이너 등 세계 우수 음악 마켓의 디렉터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행사 기간 중 우리 뮤지션들의 음악을 직접 듣고 만나서 함께 작업을 하거나 자신들의 페스티벌에 초청할 파트너를 선발하는 한편, 국내 음악산업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과 해외 진출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한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획사에 의해 공장 제품처럼 만들어지는 K팝 콘텐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미국 빌보드 대표이자 할리우드 리포터의 총괄 편집장인 제니스 민의 조언은 새겨 들을만 했다. 기존연사로 이번 행사에 참석한 그는 “싸이 이후의 차세대 스타가 등장하면 K팝이 더 널리 알려질 것으로 본다”며 한류가 지속 발전할 것이 라는 긍정적 전망도 던져주었다. 그들이 공동작업의 대상 혹은 초청자로 선택한 14개 팀 뮤지션들의 면면도 다양한 계란 바구니가 필요하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라디오헤드(Radiohead)가 속해 있는 영국 XL레코딩의 대표 프로듀서 로디 맥도널드는 “연주하는 악기에 매력을 느꼈다”면서 우리 전통 악기로 록을 연주하는 퓨전 국악그룹 ‘잡미나이’를 선택했다.

토니 마세라티는 “재미있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을 한다”며 기존 아이돌과 다른 댄스음악을 펼치는 ‘솔탄오브더디스크’와 작업하기로 했다.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는 대중들에게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개성 넘치는 하모니를 들려주는 복고풍 걸그룹 ‘바버렛츠’를 비롯한 5개 팀을 초청했다. 내년 6월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미엠(MIDEM)에는 록 인디밴드 ‘로큰롤라디오’와 ‘로로스’가 참가하게 됐다. 이들은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자신을 선정한 프로듀서들과 함께 그들의 근거 도시에서 현지 뮤지션들과 교류하며 음악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와 미엠을 비롯해 세계 4대 음악마켓인 싱가포르의 뮤직매터스(Music Matters), 캐나다의 케네디언뮤직위크(CMW) 무대에서 전 세계 음악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실력을 맘껏 뽐낼 것이다. 이들이 아이돌 그룹이 열고, 싸이가 넓힌 K팝 한류의 길을 더 여러 갈래로 펼쳐나가며 해외의 팬들에게 K팝의 무한한 잠재력과 다채로움을 보여줄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법조칼럼

사회 변화와 보험소송



김 민 표 변호사

흔히들 살면서 가지 않으면 좋은 곳으로 병원과 경찰서, 법원 등을 꼽곤 한다. 아마도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동시에 겪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보험 소송을 겪는 분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양한 보험관련 소송 중에서도 특히 보험사리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분

들이 특히 그렇다. 소위 ‘유병장수’ 시대에 암 보험을 비롯한 많은 질병 보험 상품들은 입원, 통원기간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그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사유와 방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환자들이 곤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외 보험사의 약관은 입원·통원 치료에 있어서 질병의 ‘직접’ 치료에 한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직접’ 치료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교적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 여기서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트렌드와 충돌이 발생한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된 요양병원은 질병에서 직접 치료하는 의료기관이기 보다는 좀 더 나은 치료환경을 조성해 주는 의료기관으로서 많은 환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암 제거 수술을 마친 환자들은 수술 후 하루에 약 30분~1시간이 소요되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데 기존에는 통원으로 치료하여 왔다면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 병원의 인근에 위치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과정에서 흡사나 있을 수 후유증에 대비하고 좀 더 편안한 간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보험사들은 미처 대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즉, 요양병원에 입원함과 동시에 방사선 치료 병원에 통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새로운 화두가 된 것이다. 과거처럼 입원과 통원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첩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손익이 조금씩 악화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요양병원에서의 치료가 과연 질

병의 ‘직접’ 치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후유증’ 치료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물론, 많은 보험사들은 위와 같은 경우에 질병으로 신음하는 고객과 법적 분쟁으로 다투기보다 그 지급에 동의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듯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보험사나 고객 모두에게 불행한 일일 것이다. 결국, 보험사와 환자들의 싸움은 대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종지부가 나게 될 것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요양병원 역시 환자 수 확보 등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까지 제기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추측컨대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그 수가 많지 않고 당사자간에 화해나 조정으로 종결되기 때문이 아닐까.

社 說

또 후진국형 참사, 광주·전남도 눈 부릅떠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후진국형 참사가 또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로 관람객 1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이다. 이날 사고도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환풍구 주변에는 안전요원조차 배치되지 않았고 환풍구 위로 올라가는 관객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않았다. 공연 주최 측이 환풍구 주변에 울타리만 쳐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환풍구 안에 낙하를 막아주는 보호물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시설 및 관리 규정도 부실해 화를 더 키웠다. 환풍구는 공연 무대에서 10여m 떨어진 광장 구역 밖에 설치된 시설물이고 안전 점검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왔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

한국형 건설’을 다짐했다. 하지만 잇따른 대형사고는 안전에 대한 교훈을 전혀 새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역에서만 지난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지난 7월 광주에서는 도심에 소방헬기가 추락해 조종사와 소방관 등 탑승자 5명이 숨졌다. 앞서 1월 말에는 여수산단의 한 정유회사 송유관에서 선박 사고로 기름이 바다로 유출돼 오염이 확산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 사고 역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춰어도 막을 수 있었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참사를 지켜보아야 하는 지 답답할 뿐이다. 광주·전남지역도 축제와 공연이 많이 열리고 노후된 학교시설과 예술회관, 수많은 환풍구 등이 산재해 있다. 언제든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도. 모두가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위험요소부터 제거해야 한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은 안 된다.

불법조업 中어선 단속 고삐 늦추지 말라

지난 16일 중국의 금어기가 풀리면 서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서해에는 중국 쌍끌이어선들이 수백 척 씩 때로 몰려다니며 우리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어선은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살인적 저항으로 맞서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본보의 단속현장 취재에 따르면 중국 쌍끌이어선들은 주로 밤시간대를 이용, EEZ를 침범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 번에 300여 척이 집단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해경도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어선 중 2~3척을 대상으로 타깃 단속을 펼치고 있다가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어선들은 5~6척씩 편대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도주하는가 하면 사전 체증을 피하기 위해 배 결면에 적힌 선명을 아예 지워 놓아 단속에 애를 먹고 있

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들어 이들 어선들이 조지 폭력 수준의 저항을 한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 단속요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갈고리, 쇠파이프, 칼 등으로 무장하면서 전횡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단속에 국도의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최근 발생한 중국어선 선장의 총격 사망으로 해경이 곤혹스러운 입장이지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기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연간 20만 척을 웃돈다. 어족자원을 깎아먹는 이들은 해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외교문제 비화를 두려워해 느슨한 단속을 펼치다간 우리 서해는 그들에게 고스란히 먹히고 만다. 해경은 단속의 고삐를 늦추서는 안 된다. 해적과 다름없는 무리들에 대한 민국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기 고

14억 ‘요우커’를 광주·전남으로



김 진 강 호남대 한국형복합리조트 인재양성사업단장

최근 1억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遊客)가 세계를 누비며 100조원 이상을 뿌리면서 전 세계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리적 인접성과 한류 붐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요우커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32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으며, 올해는 600만명, 내년에는 1천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 ‘요우커’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국내 외국인 카드 이용액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한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중화권 전체를 포함할 경우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범 중화권 관광객들의 막강한 구매력을 실감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화권과 인접해 있어, 중화권 관광시장은 우리 내수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중화권 관광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들까지 앞 다퉈서 관광인프라 확충과 새로운 발전모델을 개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다. 그중 하나가 복합리조트(IR : Integrated Resort)이다. 복합리조트는 스키, 골프, 카지노, 리조트, 컨벤션 등 한두 가지 테마 중심으로 운영돼오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이 모든 요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산업 모델이다. 국가전략관광산업이기도한 복합리조트는 단일 리조트 단지 내에 특급호텔,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결합산업)시설, 카지노, 테마파크, 면세점 및 아울렛, 여행사 등 다양한 비즈니스 및 레저·휴양 활동이 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된다. 중화권 관광객에게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시설을 중심으로 그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원활한 의사소통,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또 그들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등을 구축하는 것이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

이다. 광주·전남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수 천년 전부터 중화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한반도와 중화권을 잇는 전진기지 역할을 해 온 곳이기도 하다. 광주에는 G2로 부상한 중국의 14억 인민들이 추앙하는 음악가 정용석 선생의 탄생지가 있고, 전남은 요우커들의 발길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보석같은 다도해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중국 프렌들리’를 공약으로 내걸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위한 잔羹을 내놓았고, 이낙연 전남도지사 또한 대 중국 비즈니스를 통해 전남의 활로를 모색해 보고자 중국 방문길에 나선다. 교육부가 지방대 경쟁력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지방대 특성화사업에 6개 사업단이 선정돼 호남권 사업대 중 1위를 차지한 호남대학교 특성화사업단 중 하나인 ‘한국형 복합리조트인재양성 사업단’은, 향후 5년 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중화권을 타겟으로 한 복합리조트산업과 관광콘텐츠 개발, 중화권 관광객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아울러 수도권 등에 편중되어 있는 외래 관광객을 광주·전남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호텔경영, 중국어, 조리과학과 등 3개 학과가 참여하는 융복합형사업단인 이 사업단은 5년의 특성화사업 기간 동안 44억 5000만원의 국비를 투입해 숙박, 여행항공, 컨벤션, 카지노·테마파크·크루즈 등 관광레저, 음식조리분야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해외취업과 창업 등 창조관광 서비스전문가를 배출하게 된다. 또 이들 3개 학과 학생들에게는 풍부한 국비 장학혜택과 맞춤형 실무역량강화 등 특화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배스드 마일리지, 스마일 게이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선진지 탐방 및 교류대학 파견 및 연수기회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복합리조트와 같은 관광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관광인프라가 취약한 광주·전남지역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호남대 한국형 복합리조트인재양성사업단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목말라 있는 광주·전남에 감로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차원의 협력과 공조를 통한 시너지를 기대한다.

無 等 鼓

지리산 단풍 하면 단연 피아골을 떠올린다. 피아골 단풍은 ‘지리산 10경’(峴) 가운데 하나로 다른 곳보다 유독 색이 짙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 대해 혹자는 한국전쟁 당시 피아골에서 죽은 빨치산들의 핏물이 배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피아골 등산로 입구에 선 안내판에는 ‘왜 피아골이라 불릴까요?’ 물음과 3개의 보기가 적혀있다. ①전쟁으로 인한 ‘피의 골짜기’ ②피난지로서 ‘피하라는 것이다. 다음 해설판에는 지명 유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연곡사에 수백 명의 승려가 머물러 수행하여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척박한 토양에도 잘 자라는 오곡(쌀·보리·조·콩·기장)중의 하나인 피(기장)를 많이 심어 배고픔을 달랬다는 데서 피밭골이라 부르던 것이 점차 변화되어 피아골로 불리게 됐다”는 것. 그래서 마을 이름 역시 기장지(穞), 발전(田)자를 써서 직전마을이라 부른다는 부연설명이다. 반면 땅이를 연구가인 윤여정 나주시 혁신도시정보단장은 지난 2009년

피해 ‘대한민국 행정지명’에서 ‘비탈진 곳의 마을’의미인 ‘빛골’[빛골]피앗골] 피밭골로 변화된 것을 피밭을 취해 직전이라 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지난 주말 지리산 피아골 단풍산행을 다녀왔다. 십수년만에 골짜기 입구에 들어서니 이곳저곳에 들어선 편선건물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아직 본격적인 단풍시즌은 이르지만 산 머리부터 서서히 붉은 빛깔이 내려오고 있었다. 20여년 산행하며 ‘삼홍소’(三紅沼)에 당다. 삼홍은 단풍에 산이 붉게 타는 ‘산홍’(山紅)과 붉은 단풍이 물에 비추어 물까지 붉게 보이는 ‘수홍’(水紅), 산홍과 수홍으로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 보이는 ‘인홍’(人紅)을 일컫는다. 늦게 출발한 탓에 지리산 능선까지 오르지 못하고 피아골 산장에서 탐을 식히며 마음에 점을 찍고 들어섰다. 단풍잎은 역광을 받아 더욱 붉은 빛깔을 발산했다. 하산길에 연곡사에 꼭 들러보길 권한다. 국보·보물로 지정돼 아름다운 3개의 부도뿐만 아니라 동백나무 밑에 외로운 서있는 구한말 의병장 고광순(1848~1907) 선생 순절비도 꼭 찾아보길... /송기사회2부장song@

피아골 단풍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7-9500)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